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비전 변화와 시민참여

반정화, 송미경 |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jhpan@si.re.kr, meekyong@si.re.kr

1.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 비전 방향

세계 주요 도시들의 주요 이슈 변화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 개발이 도시의 성장 전략과 직결

- 기술발전의 다양화 및 융복합화, 기술혁신 및 신기술 분야의 확대(IT, NT, ET 등), 바이오 기술의 급부상
-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중 강화, 창조경제 성장 및 신산업의 형성

□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달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탄소시장 활성화, 에너지 대책(에너지믹스, 수급구조 등)과 재해 방지 대책 마련

□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변화

- 주택문제, 인구변화, 고령화, 단독가구 증가, 외국인 수의 증가 등에 대한 융합 정책
- 양극화로 인해 도시민의 삶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포용, 사회적 약자 배려, 다문화포용, 커뮤니티 형성 등

글로벌 도시들의 도시계획 프레임 변화

□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부각

- 도시가 보유한 역사와 문화를 부각시켜 도시의 정체성 강조
-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교통, 환경, 일자리, 복지 등을 상호 연계하여 계획

□ 성장시대에서 성숙 및 관리의 시대로의 전환

- 성장을 위한 노력보다는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에 대응하는 관리방안이 급선무로 등장
 - 온실가스감축 목표 설정, 저에너지도시 조성, 도시밀도 조정 등

□ 신시가지 개발에서 도시재생, 도시정비, 리모델링을 위한 노력이 중시

- 개발 우선의 정책 추진으로 도시의 발전은 가져왔으나 환경의 파괴 및 도시 정체성의 부재, 난개발 등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개발이 추진

□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도시관리 및 공간이용 방안 모색

- 소유자 중심의 계획에서 생활자 중심으로의 계획으로 대상의 포커스가 변화
- 도시관리와 공간개발에 있어 참여, 소통, 커뮤니티 강조
- 도시개발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

2. 도시계획 수립에서의 시민참여

(1) 런던 플랜(London Plan)

□ 런던 플랜의 비전

- 런던 플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세계 최고의 도시 만들기¹⁾
 - 런던플랜 초안(2008년)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적 포용, 런던의 환경과 자원 사용의 근본적 향상을 주요 목표로 제시
 - 런던플랜 수정안(2011년)에서는 주택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빠르고 편리한 교통, 고용과 연계된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 목표로 수정

□ 런던 플랜의 위상 및 수립과정

- 런던 플랜은 지역차원의 공간발전전략(Regional Spatial Strategy, RSS)으로, 전략계획과 종합계획을 절충한 성격
 - 영국은 2004년 12월 ‘도시계획 및 강제 수용법(The Planning & Compulsory Purchase Act)’ 발표를 통해 도시계획을 전면 개편
 - 영국의 도시계획은 ‘지역공간전략’과 ‘지역개발구상’으로 구성되며 런던 플랜은 ‘지역공간전략’에 해당
- 런던 플랜은 2004년 최초로 수립되어 주기적으로 수정·보완되어 발표 및 출간
 - 런던 플랜의 수립 주체는 시장과 시의원으로 구성된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로 최근 계획은 2008년 초안이 작성되어 공표
 - 이후 시민검토(Examination in Public, EiP) 과정을 통해 2011년 수정안 재출간²⁾

1)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의 쓴 서문 중(Mayor of London, 2011)

2) <http://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LP2011%20sustainability%20statement.pdf>

□ 런던의 시민참여

- 런던 정부는 도시계획 수립시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과정을 법률적으로 의무화
 - 런던에서 시민참여는 시민들이 소유의식을 느끼게 하고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투명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
- 런던 플랜 수립과정은 종합적 영향평가(Integrated Impact Assessment, IIA)와 시민검토과정이 필수
 - 런던대위원회에서 통과한 런던 플랜 초안은 대시민에게 공개하여 1년 여 간의 시민검토과정을 통해 수정³⁾
 - 이와 동시에 종합적 영향평가과정에서 공공 컨설팅과 공공심사를 수행
 - 위 과정을 통해 수립된 평가의견에 대해 런던 시장은 반영여부를 알려주고 수정(안) 마련

(2) 베를린의 도시기본계획(Flachen nutzungs plan, FNP)

□ 베를린의 도시기본계획(FNP)의 구조

- 베를린 도시계획은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FNP)과 부분별 도시발전계획(StEP)으로 이원화
 - 도시기본계획(FNP)은 도시발전의 방향과 토이지용의 밀도, 기능분배에 대한 법적 기반으로 제공하는 계획
 - 도시발전계획(StEP)은 주택, 산업경제, 공급시설, 교통, 중심지 등 부문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법정계획
- 도시기본계획(FNP)은 교통, 환경, 주택, 기반시설 등 물적 계획을 총괄하는 도시발전국이 수립하며, 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
 - 도시기본계획(FNP)은 여건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계획의 재정비 위주로 운용되며, 일정한 재정비 주기 없이 필요에 따라 수립
- 계획 수립과정에서 두 차례 이상 시민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은 수시로 신청하되 일괄 결정하는 상시 재정비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베를린의 시민 참여

- 계획수립의 참여과정에 대한 기준을 건설법전(BauGB)에 명시
 - 시민참여는 물론 관련기관 및 부분별 계획수립주체의 참여를 규정(BauGB 3,4조)
- 도시기본계획(FNP)의 계획목표와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람과정을 통해 의견을 개진
 -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결과와 미반영 시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재차 공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최종 고시
 - 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이 추가로 마련
- 베를린의 계획수립과정에는 계획수립 주체, 시민, 관련부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의사소통창구가 존재
 - 전략적 권역계획(Planwerke), 지구마스터플랜(Stadtebaulicher Rahmenplan), 생활권 발전계획(BEP) 등이 소통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계획
- 베를린시는 1990년대 초 ‘도시포럼(Stadtforum)’이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베를린의 중요한 공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에 반영
 - 이 기구는 개별 계획의 공람·공고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계획의 정합성·투명성·형평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3) 2008년 초안 검토 시 944개의 정부기관, 공공기관, 대표기구, 기업 및 개인을 포함하여 약 1,500여 명의 시민이 의견 개진

(3) 뉴욕 PlaNYC

□ 뉴욕 PlaNYC의 비전

- PlaNYC는 2007년 더 푸르고 더 큰 뉴욕(Greener, Greater New York)을 향후 20년 뉴욕의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고 10개의 목표 제시
- 2011년에는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며 주요 목표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분야의 참여, 모든 시민의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한 참여 촉구
 - 주거 및 상업 건물에서 좋은 질의 난방기름 이용, 민간 트럭 회사에서 친환경 트럭으로 교체 장려,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등⁴⁾

□ 뉴욕 PlaNYC의 성격

- 뉴욕시가 당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성장, 노후화된 기반시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 전략 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PlaNYC는 2007년에 처음 수립되었고, 뉴욕시 헌장(2008년)에 근거하여 4년마다 이행 결과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1년 업데이트 된 바 있음
- 뉴욕시장의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법적 권한으로 작성
 - PlaNYC 수립은 시장 직속부서인 Mayor's Office of Operations가 담당하고, 계획의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모든 관련 부서들이 참여
 - 이에 따라 계획의 수립은 물론 이행과 모니터링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통제가 가능
- 시장의 주도아래 마련된 계획은 시 및 구기관들과의 협의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

〈 PlaNYC의 6개 부문별 10개 목표 〉

- ▶ 토지
 - ① (주택) 약 100만명의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지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
 - ② (오픈 스페이스) 모든 시민이 공원으로부터 10분 이내에 거주
 - ③ (오염지대) 뉴욕의 모든 오염된 토지 정화
- ▶ 수자원
 - ④ (수질) 수질오염 저감과 자연지역 보존을 위해 90%의 물길을 개선
 - ⑤ (수자원네트워크) 주요 복구시스템 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수자원 네트워크 정비
- ▶ 교통
 - ⑥ (교통혼잡) 추가적인 100만을 위해 교통용량 증가 및 통행시간 향상
 - ⑦ (시설정비) 뉴욕의 도로, 지하철, 철도를 역사상 최초로 완벽한 정비 실시
- ▶ 에너지
 - ⑧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여 모든 뉴욕 시민에게 제공
- ▶ 대기질 개선
 - ⑨ 미국의 어떤 대도시보다 맑은 공기 만들기
- ▶ 기후변화
 - ⑩ 지구 온난화를 조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30% 감소

□ PlaNYC는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 PlaNYC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
 - 100회 이상의 시민회의, 11회의 공청회, 수십 회의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뉴욕시민의 의견 적극 수용
- PlaNYC를 통해 뉴욕의 미래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
 - 뉴욕시민은 물론 이민자 및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함
 - 커뮤니티 리더 회의(Community Leader Meeting), 이민자 리더 회의(Immigrant Leader Meeting), 환경정의 청소년 회의(Environmental Justice Youth Summit) 등

□ 주민 참여의 핵심,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 뉴욕에서는 공식적인 주민참여 방식으로 '커뮤니티 보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뉴욕시는 5개의 자치구(Borough)와 59개의 커뮤니티 지구(Community District)로 구성⁵⁾
 - 커뮤니티 보드는 지방정부의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1963년에 만들어졌으며 각 커뮤니티 구역을 대표
- 커뮤니티 보드는 일정한 권한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
 - 주요권한 : 공공서비스 전달(Service Delivery), 시예산의 집행(City Budget Process), 토지이용계획(Land Use Planning), 커뮤니티 옹호활동(Community Advocacy)
- 시헌장에 따르면, 커뮤니티 보드는 '당해 커뮤니티 구역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커뮤니티 구역과 당해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되는 어떠한 문제라도 선출직 공무원과 협력하고 자문하며, 지원하고 조언하도록' 규정
 - 특히, 1975년 시헌장 개정으로 시작된 '표준 토지이용 심의과정(Uniform Land Use Review Procedure)'에는 커뮤니티 보드가 자치구 장에게 제안서가 제출되기 전 60일내에 계획안을 검토하여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규정
 - 또한 1989년 시헌장 개정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가 환경검토 과정에서 커뮤니티 보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커뮤니티 보드는 토지이용 결정 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
- 커뮤니티 보드 구성원 자격
 - 당해 구역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최대 50명의 무급 봉사직 위원
 - 이 중 절반은 자치구 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이 임명
 - 각 커뮤니티 보드는 구역장(District Manager)을 대표로 두며, 독자적인 사무실을 꾸리고 인력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

(4) 파리도시계획(PLU)

□ 파리의 도시계획 비전

- 파리도시계획(PLU)은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계획(Le Cahier des recommandations environnementales, PADD)을 미래의 청사진으로 설정하고 3개의 목표를 설정
 - 건축, 경관,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녹지, 경관, 공공공간, 대중교통 등)
 - 낙후된 시설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활성화 : 낙후지역 정비, 공공소유 건물 및 토지의 활용을 통해 수공업, 소상공업, 문화산업, 관광, R&D 등의 창조산업을 위한 공간 마련
 - 도시의 불평등과 소외 문제 적극 해결 : '도시빈민지역정책' 과 '대형도시재생계획' 을 통해 가장 취약한 서민지역의 환경개선, 공공임대주택 건설, 소외지역의 사회적 통합 추진

5) 커뮤니티 구역은 인구와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면적 900~1,500acre, 인구 35,000~250,000명을 기준으로 설정

□ 파리도시계획(PLU)의 위상 및 수립과정

- 파리도시계획은 토지이용규제와 중·단기 전략 계획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종합적인 목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가능
- 현재의 파리도시계획(PLU)은 2001년부터 추진되어 2008년에 수립되었으며 유례없이 큰 규모로 이루어짐
 - 계획초기단계부터 파리의 주도 아래 500명 이상의 시민단체,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8개의 분야별 연구팀이 조직
 - 계획과정은 현황분석, 도시정비계획 결정, 규정의 개정으로 나누어지며 9단계의 수립절차에 따라 각 단계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의견 수렴 및 협의

〈 파리도시계획의 수립과정 〉

- ▶ 1단계 : 시의회의 도시계획개정 의결(2001년 10월 23일)
 - 협의과정은 현황분석, 도시정비계획 결정, 규정의 개정 등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됨
 - 2002~2004년 매년 단계마다 파리 모든 구청에서 최소 1회 이상의 전시회와 회의가 열림
 - 계획의 핵심 방향에 대한 안접 도시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각 도시 책임자들에게 보고
- ▶ 2단계 : 시장의 주관 아래 수립 절차 시작
 - 현황분석 단계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전시회 개최 및 의견수렴 상설창구 설치
 - 구청 단위의 1차 협의 토론회를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 단위로 브리핑 진행
 - 지구평의회의 설립으로 시민의 직접적인 시정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모든 주민에게 열린 토론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 3단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내용 토의(2003년 1월 27일)
 - 파리지 구청별로 지속가능한 발전(Projet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PADD)을 위한 계획을 전시하고 시민의견수렴 상설창구 설치(2003년 2월 7일~4월 5일)
 - 구청별로 제2차 협의 토론회 개최(2003년 상반기)
 - 지구평의회는 일반 시민들의 제안을 분석
 - 121개의 파리 지구평의회는 시민들에 의해 제안된 1만4천개의 의견들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
 - 이러한 제안에 대한 파리 시청의 대응결과(PLU제정 관련과 그 외의 다른 시정관련 주제) 역시 각 구청에 보고
 - 파리 시청에서 파리도시계획(PLU)에 대한 총회 개최(2003년 6월)
- ▶ 4단계 : 도시계획규정 초안 조정
 - 분야별로 자문회의와 전략위원회를 10차례에 걸쳐 개최
 - 총 조정 기간 : 2003년 9월~2004년 3월
- ▶ 5단계 : 대규모 파리 시민 설문조사(2004년 5월부터 진행)
 - 각 구청에 도시계획규정 전시(5월 17일~6월 25일)
 - 각 구청에서 제3차 협의회의 개최(3~6월)
 - 2003년 협의회에서 도출된 14만개의 파리 각 지역 제안에 대한 파리의 의견 종합분석
- ▶ 6단계 : 파리 시의회, 파리도시계획(PLU) 초안 의결(2005년 2월1일)
 - 41개 관련 공공단체(중앙정부, 주정부, 인근 도시대표 등)의 의견수렴(자문기간 : 2005년 3~5월)
- ▶ 7단계 : 파리도시계획(PLU) 공청회 개최(2005년 6~7월 중순)
- ▶ 8단계 : 공청회 결과보고서 제출(2006년 1월 26일)
 - 파리도시계획(PLU)의 최종결정을 위한 조정기간(2006년 2~3월)
 - 각 구청에서 브리핑(2006년 4~5월)
 - 각 구의회 회의(2006년 5월말~6월초)
- ▶ 9단계 : 파리 시의회의 파리도시계획(PLU) 최종 결정안 승인(2006년 6월 12일)

□ 파리시의 시민 참여

- 파리시는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와 공청회 감독위원회를 통해 시민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구평의회는 지구(Quartier)뿐 아니라 전체 기초자치단체(Commune)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시정에 도움을 줄 자문기관으로 활약

〈 지구평의회(Conseil de quartier) 〉

- ▶ 프랑스의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 기관
 - 2002년 2월 7일 제정된 '근린 민주주의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Démocratie de Proximité)'에 의해 창설
 - 인구 8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2만~8만의 도시들은 선택적으로 설치
- ▶ 지구 평의회의 활동주체
 - 시의원, 각종 이익단체, 시민단체(Association), 주민단체들의 대표로 구성
 - 시의회가 임명할 수도 있고 자원인들 사이에서 선출될 수도 있음
- ▶ 주요 역할
 - 활동방식, 역할, 의원구성 등은 각 도시의 시의회가 결정
 - 시장국과의 사이에서 지역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협의의 장으로 법률 제정 기능은 없음
 - 지역민을 위한 정보제공, 토론의 장 마련, 지구와 관련된 사업의 계획·실행에 대한 의견 서술

- 공청회 감독위원회는 파리행정법원장이 임명하며 파리 20개 구청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할 의무
 - 보고서는 공청회 진행상황, 감독위원회 관찰 내용과 의견, 그리고 결론 등의 내용을 수록
 - 감독위원회 보고서는 파리도시계획(PLU) 초안에 따른 각종 의견, 제안, 유보사항 등을 정리하여 최종 승인에 반영되도록 함

〈 2008년 파리도시계획(PLU)의 공청회 진행 과정 및 제안사례 〉

- ▶ 공청회 감독위원회 선정
 - 2005년 3월 30일 파리행정법원장이 감독위원회 위원 임명(9+3)
- ▶ 공청회 진행 및 보고서 제출
 - 파리 20개의 구청에서 2005년 5월30일부터 7월13일까지 공청회 진행
 - 파리 시청에 4개 분야로 구성된 2,0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제출(2006년 2월 6일)
- ▶ 주요 제안사례
 - 일부 지역 건축예술에 기여할 특수한 건물에 대한 고층건설 허가 제안
 - 현재까지 일반적 도시계획에 적용되지 않았던 협의정비지구(ZAC)가 PLU에 포함되어야하므로 관련 지역에 대한 고려 요망
 - 공공공간 관리개선 → 시민을 위한 공간(Space civilise)과 정비계획(obilien)을 통해 진행 중
 - PC(Petite Centuire)도로의 철도 기능 강조 → 현재 파리 대부분 지역에 트램 전차노선 순환

3. '2030 서울플랜' 수립과 시민참여

□ 서울시는 서울의 20년 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2030 서울플랜'을 수립

- 2030 서울플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별칭으로, 여기에 '시민과 함께 만든다'라는 의미를 담고자 함
 -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도시의 미래상(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분야 최상의 법정계획
 -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공간구조를 비롯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주택 등 관련 공간계획을 조정하고 조율함으로써 총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 성장 목표 추진
 - 2030 서울 플랜은 그 수립 과정에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을 발족해 일반 시민이 직접 서울시의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미래 비전 제시하는데 참여 시킴
- 서울은 매우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사는 도시로 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수용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섹터의 시민을 계획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과거 '공람' 혹은 '공청회' 방식에서 '시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도록 기획
 - 시민은 훈련된 전문가와 달리 일상 생활에서 축적된 경험에 의한 지식을 지니고 도덕적·윤리적 판단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식을 가진 주체
 -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평화롭게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 가능
- 숙의(Deliberation)에 기반을 둔 합의회의⁶⁾를 통해 서울플랜 참여단에게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 토론,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비전 및 핵심이슈 도출
 - 숙의에 기반한 시민 참여는 참여자가 자신의 지식을 형성하고 판단을 변화시켜 나가는 동태적 과정으로 기존 민주주의 방식을 확장하고 심화

□ 시민참여단 제안 내용

-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를 203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미래 서울의 정책과제로 사람들간 상호 소통·존중과 소외된 부분에 대한 배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이슈로 교육과 복지,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이밖에 소통, 역사문화보존, 기후변화와 도시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

〈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

- ▶ 의미
 -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이란 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100명의 시민을 의미
 - '서울의 미래상은 서울이 직접 만든다'라는 취지 하에 일반 시민으로만 구성된 최초의 시민계획 조직으로 서울시장직접 위촉
 -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에서 만든 2030년 서울의 미래상은 '2030 서울플랜'에 반영
- ▶ 구성
 - 구성인원 : 100인
 - 참여대상 : 서울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 모집방법 : 랜덤 샘플링 (성별, 연령, 직업, 지역 고려 → 통계적 대표성 확보)
 - 참여방식 : 합의회의(강의 → 숙의 → 보고서 작성), 분임토의, 투표

6)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란 선별된 10~20명의 보통 시민이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기술적·환경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증언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발표하는 공개 포럼

〈표 1〉 서울플랜 참여단 구성

성별	합계	대학생	전업주부	직장인	기업인	자영업자	어르신	장애우	외국인
계	100	14	18	36	7	15	6	2	2
남	47	7	-	17	6	10	4	2	1
여	53	7	18	19	1	5	2	-	1

자료 : 서울연구원, 2012.

4. 소결

□ 과거 도시계획 비전은 소수의 고위 의사결정자와 도시계획가들에 의해 판단된 결과물

- 급격한 사회변화,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그들의 일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변할 수 있는 계획이 미흡
- 좋은 비전과 계획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실행되지 못하거나 계획의도가 변질되어 많은 부작용과 논란 초래
-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획 초기부터 시민참여를 통해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도시기본 계획 수립 이후 계획의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 선진 도시의 경우 비전 수립 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중

- 런던, 뉴욕, 도쿄, 베를린은 도시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합의하는 계획 수립
- 특히 서울, 파리, 뉴욕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 시도

□ 시민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시민의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2005년에 수립된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미래상 공모,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형식적 참여 유도에 그침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30 서울플랜에서는 시민참여 방식을 확대하여 서울플랜을 수립함
- 이제 남은 과제는 시민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서울플랜을 잘 실행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것

참고문헌

- 반정화 · 박정윤 · 라도삼. 2013. 세계 주요도시 혁신사례 연구 : 파리.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 2012.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자료집. 도시기본계획연구센터
- 서울연구원. 2012.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비전. 도시기본계획연구센터
- 양재섭. 2010. 세계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 비교연구-런던, 베를린, 뉴욕, 도쿄. 서울연구원.
- 양도식. 2008. 런던플랜의 수립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국토연구 통권325호(2008년 11월), pp.112-121.
- Amanda M. Burden. Shaping the City : A Strategic Blueprint for NewYork's Future.
(<http://www.nyc.gov/html/dcp/html/about/strategy.shtml>)
- Greater London Authority. 2011. London Plan-Spatial Development Strategy for Greater London.
- Mayor of London. 2011. Replacement London Plan-Sustainability Statement.
- NewYorkCity. 2011. PlaNYC : 2011 Update. (http://www.nyc.gov/html/nycmg/nyctvod/html/home/planyc_2011.html)